

아동상담에서의 치료적 ‘민감성’ 분석: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윤 미 원¹⁾

윤치료놀이상담센터

신 현 정²⁾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본 연구는 아동상담방법 중 하나인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치료적 ‘민감성’을 아동, 즉 영아와 치료사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구명(究明)하고 있다. 특히 치료적 ‘민감성’을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해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치료적 ‘민감성’은 ‘일관’, ‘몰입’, ‘믿음’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치료사는 아동의 ‘다층적 일관’에 대응해 ‘원리적 일관’으로 상호작용하였는데 치료사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토대로 각기그때마다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일관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 하였다. 아이들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답습적’인 모습에서, ‘전이적’ 모습으로 또 ‘구성적’ 일관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 치료적 ‘민감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는 ‘몰입’이었다. 몰입은 때로 ‘무관심’으로, ‘공감’을 전제로 한 ‘배려’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상호작용으로의 ‘전환’ 계기도 되었다. 나아가 치료적 ‘민감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치료사의 믿음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태’인 아동에 대한 존재론적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치료적 ‘민감성’에 대한 상황적 맥락의 분석을 토대로, 치료사들의 행위 이면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심리적 기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원리’와 ‘내용’의 조화 추구였다. 치료사들은 확고한 원리를 갖고 아동의 상황에 맞게 행위(내용)했다. 그러나 아이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행위 하기가 어렵기에 치료사에게는 또 다른 기제가 필요했다. 그것은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였다. 치료사는 민감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 다양한 역동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나은 치료적 민감성을 드러낼 기법적 숙련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기반성은 치료사에게 필수였다.

주요어 : 민감성, 상호작용, 현상학, 질적 연구, 치료놀이(Theraplay), 아동상담

* 본 연구는 2012년 7월 30, 31일에 개최된 치료놀이 아시아 컨퍼런스(Theraplay Asia Conference)에서의 <양육자의 민감성에 대한 맥락적 재해석>이라는 원고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윤치료놀이 상담센터, 소장

2) 교신저자 :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E-mail : hjnew@paran.com)

I. 서론

아동이 잘 자라려면 그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양육자)는 민감해야 한다. 어머니의 민감성(sensitivity)이 아동, 특히 영아 발달에 중요 지표가 된다는 것(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69)에 기초해 학자들은 그 동안, 어머니 민감성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해 왔다. 그 중에서도 영아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 여러 영역에의 발달적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라는 사실(Snow, 1989)은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과장을 불러 일으켰다. 언어적 미성숙 단계에 처해 있는 영아의 욕구 및 발달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이에 따른 영아기 중요성의 설파는 특히나 이 시기 양육자의 민감성에 관한 학문적 호기심을 촉발하였다. 학자들은 민감성을,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해석한 후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자발적인 양육자의 능력(Ainsworth et al, 1978)이라 보았다.

그리고 영아의 욕구에 적합한 반응을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하려는 어머니의 경향성(Lamb & Easterbrooks, 1981)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의 욕구를 인식하는 어머니의 능력(van den Boom, 1997)이라 간주하기도 했다. 학자들의 의견 속에 민감성은, 아동의 욕구를 인식하는 측면과 적절하게 반응하는¹⁾ 측면을 포함한다. 민감성의 개념은 다른

주요 연구(Pederson, Gleason, Morgan, & Bento, 1998; Valenzuela, 1997)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영아기 애착형성과 아동 발달에 어머니의 지각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실생활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는 추세다. 민감하지 않은, 즉 생애 초기부터 영아의 욕구를 적절하게 지각하고 반응하지 못해왔던 어머니와 자녀 간 겪는 발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및 관계적 어려움 관련 연구의 증가(구미향, 2000; 김연, 황혜정, 2008; 박웅임, 1998; 신숙재, 1997;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2010; 하유미, 박성연, 2012; Belsky, Rovine, & Taylor, 1984; Isabella, 1993; Smith & Pederson, 1988)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예가 되고 있다. 실제 아동상담 현장에서 민감성에서 비롯된 양육자와의 어긋난 상호작용으로 정서, 행동, 관계적 어려움을 갖는 아동과 부모를 많이 만날 수 있다. 뼈저거리는 상호작용 방식이 영아기부터 패턴화 되어 왔기에 나이가 든 아동일수록 어려움의 정도는 특히 심한 편이다. 상담소에 온 아동은 여러 검사를 통해 문제가 사정되고 목표가 설정된다. 그리고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 언어가 능숙하지 못한 아동에게 놀이는 곧 언어이기에(Landreth, 1991; 김광웅, 김화란, 2006 재인용) 놀이로 상담하는 치료사는 아동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단히 민감해야 한다. 아동 행위의 의미를 아동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해지기

1) 적절하게 반응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까닭에 어머니의 ‘민감성’을 ‘responsiveness’라고 한 연구(권미경, 1997)들도 있다. 근래에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애착안정성 등에 주요 변인임은 분명하나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우울감, 사회적 지원 등과 같은 변인과 관련되며 민감성을 매개변인, 조절변인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Atkinson et al, 2005).

때문이다.

치료놀이(Theraplay)는 접촉놀이 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²⁾이다. 아동의 행위를 민감하게 해석하는 성인의 책임 하에 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는 치료놀이는 개입, 구조, 도전, 양육과 즐거움의 원리(Booth & Jernberg, 2010)가 기반이 된다. 치료놀이 상호작용은 치료적 요소³⁾를 바탕으로 위축, 자폐, 사회성, 자존감, 충동성, 관계 등 아동의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해 아동이 겪는 생활세계 속 어려움을 완화시킨다(신현정, 2008; 윤미원, 2005; Franke & Wettig,

2003; Mahan, 1999; Makela & Vierikko, 2004; Meyer & Wardrop, 2005; Wettig, Coleman, & Geider, 2011). 아닌게 아니라 치료놀이 장(場)은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축소판⁴⁾이 된다. 치료사와 아동은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코헛(Kohut)의 '변형적 내면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와 같은 '교정적 관계체험'(Mitchell & Black, 2002)을 한다. 그 체험 속에는, 아동의 신호를 민감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치료사와, 그 반응에 다시 행위 하는 아동 간 조화로운 상호작용(inter-action)이 존재한다. 민감성을 바탕으로 아동-치료사는 새로운 자기-타자를 재구성⁵⁾해

2) 본 연구에서 치료적 '민감성'이라 함은 곧 아동을 심리치료하는 치료사의 민감성을 지칭한다. 하지만 아동상담에서, 특히 치료놀이에서 치료사의 민감성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렇기에 치료적 민감성을 이해하는 일은 어머니 양육에서의 민감성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부스와 전버그(Booth & Jernberg, 2011)는 건강한 영아기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애착이론, 대상관계, 자아심리학에 기반을 둔 치료놀이 핵심 개념들을 소개한다. 상호작용적이며 관계에 기초, 지금-여기의 경험 제공, 성인의 안내, 반응적이고 조율적 공감적이며 반영적인 특성, 전언어적이고 우뇌수준의 발달에 초점, 다감각적, 즐거움 등의 응집된 치료놀이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치료놀이라는 치료 상황에서 발휘되는 치료적 요인은 곧 치료사의 민감성에 다름 아니며 이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치료놀이에서 치료사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기초로 치료놀이의 핵심 개념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치료놀이에서는 양육자가 치료사의 힘을 가지고 아동과 보다 소통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치료놀이에서 부모 참여는 강조된다.

4) 그런 까닭에 치료놀이에서는 어머니-자녀 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파악,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분석틀인 MIM(Marchack Interaction Method)을 활용하고 있다(Booth & Jernberg, 2011). MIM은 일상에서의 개입(engagement), 구조(structure), 양육(nurture), 도전(challenge)이라는 치료놀이 원리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MIM에서는 각 원리에 해당하는 놀이과제를 제시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 놀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일상에서의 구조, 개입, 도전, 양육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는가, 그 속에서 즐거움의 요소가 있는가를 파악해 낸다. 그런 맥락에서 치료놀이에서의 상호작용은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에 다름 아니며 치료놀이 상호작용의 변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상호작용도 변화된다. 그런 까닭에 아동과 치료사가 치료놀이에서 제공하는, 전에는 달랐던 놀이에 대한 각자의 의미를 점차 소통된 의미로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치료가 되어가는 것(신현정, 2009)이며 치료사와 아동이 갖게 된 놀이실 안에서의 의미 공유는 놀이실 밖의 세상에서도 타인들과 한층 소통되고 공유되는 의미로 전환된다.

5)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따르

변화된 자신으로, 변화된 상호작용으로 끊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어머니는 치료놀이에서 매우 중요한 협조자다. 이유는 아동-치료사 간 상호작용에서 비롯한 치료적 ‘민감성’을 어머니가 체득해서 일상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는 때때로 놀이에 참여함으로 아동의 행위에 대한 치료사의 상호작용 방식, 즉 치료사의 민감성을 배우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하나는 아동상담 현장에서의 치료사 민감성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간 강조되어 왔던 ‘어머니 민감성’(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Hirsh-Pasek & Burchinal, 2006; NICHD, 2000; Paavola, Kemppinen, Kannari, & Kumpulainen, 2006; Saxon, Colombo, Robinson & Frick, 2000)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감성’ 자체에 대한 상심이었다.

지금껏 살펴본 초창기부터의 민감성 개념은 일관되게도 ‘도구적’, ‘기능적’ 관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 민감성은 대개 ‘어머니의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이데거(Heidegger)식으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민감성을 파악한다면서 존재자(Seiende)에 집중하느라 존재(Sein)를 망각해 온 셈이다. ‘도구

적’이고 ‘기능적’인 연관으로 민감성을 바라보느라 민감성이 드러나는 현상의 맥락 속에서 ‘해석적’이고 ‘의미적’ 연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조용환(2012a)의 말처럼, 온전히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인 민감성이라는 존재를 ‘현상의 이름’으로만 파악했을 뿐,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지 못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민감성을 양(量)화된 개념으로만 설명하여 정작 우리의 삶과는 단절된 결과를 낳게 했다. 우리의 생활은 대단히 질(質)적이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각기-그때마다 다른 상황적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름만 무성한 그 민감성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다. 이미 말한 것처럼 ‘질’이라는 현상 속에서 이름으로 규정지어진 민감성이란 존재는 구체적인 맥락, 곧 상황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는, 민감성이 영아를 포함한 아동발달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민감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모르는 탓에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민감하지 못해, 혹은 실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뻘뻘한 이론적 민감성만으로 무장한 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⁶⁾들을 본다.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는 민감성의 맥락적이고 복잡다단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현실이 지금껏 민감성에 대한 적용

면,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내부의 주관적 자아 ‘I’와 객관적 자아 ‘me’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다. 주관적 자아 ‘I’란 자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의 주체인데 반해 객관적 자아 ‘me’란 타인이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Fisher, 1978).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기란 ‘주관적 자아’를, 타자란 ‘객관적 자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6) 매뉴얼화 되어 있는 부모교육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일반화’ 되어 있는 자료 속에서 ‘독특한’ 자신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능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학적 전체가 민감성이 발현되는 상황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질적으로 접근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관점을 토대로 치료사의 민감성이 치료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료적 민감성의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동상담에서 치료사의 민감성에 대한 적절한 분석, 해석은 영아를 키우는 많은 어머니들⁷⁾에게 민감성의 실체를 실례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료놀이 상황에서 치료적 민감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연구문제 2. 치료놀이 상호작용에서 발현된 치료적 민감성의 기제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7)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행위는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부모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자녀를 기존 자신이 양육 받았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유도한다. 상담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in-sight)’(신현정, 윤미원, 2011)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며, 특히 아동상담은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아동과 부모에게 제시하고 행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아동상담가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이미지를 이해, 실천하도록 지지한다.

1. 연구참여자⁸⁾

본 연구에는 세 명의 영아가 참여했다. 현상학을 배경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훗설(Husserl)의 주장대로, 의식(noesis)과 대상(noema) 간 상관작용에 주목한다. 사람이 가진 지향성이란 그 사람이 대상,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사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사례의 상황, 즉 사례성을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를 자세히 드러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용환(1999)의 말처럼, 참여자를 알아야 비로소 ‘내부자의 관점에서(from the native perspective)’ 그들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욱

정욱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 전문직 아빠와 엄마가 모두 직장 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정욱이는 입주해서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근처에 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24개월까지 자랐다. 정욱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였다. 아주 아기 때부터 잠도, 먹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았다. 한번 울면 3-4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정욱이의 그런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아이가 울다 탈진할까봐 염려스러웠고 아이에게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

8)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더불어 맥락에 따라 아이, 아동, 영아 그리고 엄마, 어머니가 혼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었다. 그러던 차, 정욱이 17개월에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나자 정욱이에게만 온 식구가 매달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식구들의 관심이 좀 소원해졌다고 느끼자 정욱이의 고집은 더욱 심해졌고 두 아이에게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엄마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개월이 더해 갈수록 정욱이는 점점 자기주장이 강해졌고 이에 온 가족은 아이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계기로 정욱이는 치료놀이를 하러 오게 된다.

가희

28개월의 여아인 가희는, 화목한 집안의 귀염둥이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엄마와 더불어 3대가 함께 살면서 가희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많은 어른들 속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했다. 게다가 유치원 교사인 엄마는 직업답게 아이와 무척 잘 놀아준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친구처럼 논다. 하지만 어쩐지 가희는 잘 웃지 않는다. 아이답지 않은 약간은 냉랭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보는 사람들도 아이를 다소 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니나 다를까 가희는 까다롭고 짜증도 많다. 엄마는 그러한 가희의 눈치를 보느라 “~할까?” 라는 말을 많이 한다. 눈치 섞인 질문으로 대응된 가희의 선택권으로 인해 엄마는 늘 결과에 버겁다. 가희네 집 역시 모든 일이 가희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아이가 원하는 일은 거의 허락된다.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 말 한마디면 어른들이 다 해준다. 울음이나 짜증을 부리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세상에 어려운 일도, 어려운 사람도 없다. 이것, 저것 만

지다 어지럽혀도 나머지는 어른들이 척척 알아서 해결해 준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의 힘을 자기 힘으로 알고 사는 가희는 힘이 없다. 끝까지 인내하는 힘도, 스스로 성취하는 힘도 없다. 늘 어른에게 보채고 불만스럽다. 마음대로 휘둘러지는 세상인데도 말이다.

동수

18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영아는 걷는다. 아이들의 탐색은 걸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탐색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바빠진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궁금하다. 그런 까닭에 이 시기 영아들의 집중은 짧아 보인다. 동수도 그러했다. 걷기 시작한 남자아이 동수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 기저귀를 차고 뒤뚱거리며 다니는 모습은 오리처럼 귀여웠고 하나하나 탐색해 나가는 발걸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의 집중이었다. 호기심은 사물의 다양한 탐색, 더 나아가 집중된 관심으로 발전한다. 피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물건을 입에도 넣어보고 찢러도 보고 던지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어눌한 상태로 자신과 세상을 알아나간다. 그 원천이 같은 호기심임에도 불구하고 동수는 또래보다도 산만했다. 앉아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엄마는 그러한 동수를 힘들어 했다. 많이 움직이고 저지르기 좋아하는 동수는 주로 아빠 담당이었다. 그런 까닭에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했고 엄마 역시 그러한 동수를 어려워했다. 애착관계에서의 불편함, 그것이 치료놀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아동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 1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름	의뢰 월령	성별	발달 및 관계적 특징
정욱	24개월	남	까다로운 기질/양육의 어려움
가희	28개월	여	짜증/지나친 고집
동수	18개월	남	산만/ 불안정한 애착관계

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의뢰된 영아들을 중심으로 치료놀이⁹⁾ 수행 과정 중 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2012년 2월부터 9월 동안에 본격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글쓰기 등이 함께 일어나는 나선형적 순환의 구조를 거치면서 수행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윤미원¹⁰⁾ 치료사와

영아 간 이루어진 치료놀이 상호작용은 비디오를 통해 기록되었다. 신현정은 윤미원과 영아 간 상호작용을 촬영하면서 때때로 참여관찰하였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신호로 나타나는 영아의 의도 및 거기에 반응하는 치료사의 의도, 이어지는 영아의 반응이 어떠한 상호작용, 어떠한 행위로 드러나는지 관찰에 관찰을 거듭해야 했다. 지속적인 관찰은 영아와 치료사 간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심층적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다. 비디오카메라를 통한 반복적 재생은 치밀한 분석과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판단중지(epoche)’의 과정은 너무나 절실했다. 소위 연구자와 치료사라는 이중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하는 건 아닌

다. 치료놀이는 접촉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중심의 심리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사 자격을 획득하는 데에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왜냐하면 민감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대면적, 직접적으로 읽고 행위해야 하는 ‘치료사의 책임(responsibility)’(신현정, 2009), 즉 ‘반응하는 능력(response-ability)’(조용환, 2012b)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9) 의뢰된 아동은 MIM을 통해 문제가 사정된 후 설정된 치료목표를 기초로 치료놀이를 하게 된다. 부스와 전버그의 말을 빌려 치료놀이에서는 개입, 구조, 양육, 도전이라는 원리를 전제로 접촉을 위주로 아동의 욕구 및 ‘각기 그때’ 상황에 맞게 치료사와 즐겁게 상호작용하게 된다. 치료놀이 기간은 아동의 어려움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동은 도입과 탐색단계, 불확실한 수용단계, 부정적 반응단계, 신뢰와 성장단계를 거치게 된다(신현정 재인용, 2009). 치료놀이는 애착이론, 대상관계이론 및 자기심리학 등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here and now’가 강조되는 심리치료방법이다.

10) 윤미원은 현재, 치료놀이 슈퍼바이저와 트레이너로서 치료놀이에 정통해 있는 치료사이며 신현정은 수련 슈퍼바이저 과정에 있는 치료사이

지 서로를, 스스로를, 전문적인 상식적인 틀 속에서 자꾸만 꺼내려 노력해야 했다. 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즉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정말로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치료놀이 치료사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make the familiar strange)’위한 방안으로 현상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택한 방법은 첫째, ‘판단중지(epoche)’였다. 판단중지란 연구자들에게 익숙해 있는 치료놀이의 상황이 치료적 민감성을 지식이나 상식이라는 틀로 루틴하게 보는 것을 막도록 하는 연구자들의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치료놀이에 관한 지식, 상식, 아동 및 어머니에 대한 선입견 등이 아동과의 치료놀이 상호작용 현상 자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즉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지식이라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내려놓기’ 연습은 연구자가 한 명이 아니기에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 그 수월성은 둘째, 토의로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서로가 본 현상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개진했으며 이로 인한 가다머(Gadamer)의 ‘지평 융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자신의 고정된 눈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하고 조합하고 조율해 가면서 현상에 대한 해석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노력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만’ 하는 행위일 수 있었다. 그러한 색을 방지하고자 연구자들은 셋째, 치료놀이를 하거나 혹은 치료놀이 외의 접근을 하는 다른 치료사들, 아동의 어머니들과 그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¹¹⁾을 가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더불어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고자 자료수집이나 연구설계의 과정을 다각도(triangulation)에서 비추어 보았다. 게다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 해석이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폈다. 그 과정에서 줄곧 현상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연구자 자신이 얼마나 반성적 성찰을 겪어 나가는지 내면의 고민과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발견한 사실들은 우선 연구자의 에틱(etic)한 틀로 정리되었다. 개입, 구조, 양육, 도전이라는 치료놀이의 차원 속에서 치료사는 아동의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맥락적으로 살폈고 에믹(emic)한 내부자들의 모습을 에틱(etic)한 틀 속으로 유목화 하는 작업을 했다.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쉽지 않게 맥락(context) 속에서 텍스트(text)를 구성해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화된 상황들은 그저 맥락이라는 컨텍스트 속에 드러난 한 모습에 불과했다. 기존의 텍스트들을 컨텍스트 속에서 풀었다가 다시 묶어내는 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다름 아니었다. 이는 또한 조용환(2012a)이 말한 문질빈빈(文質彬彬)의 과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월코트(Wolcott, 1994)가 말한 분석과 해석, 즉 “창안과 상식의 조화 추구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11) 영아들인지라 비디오나 글을 통해 당사자인 영아의 피드백(member check)을 받지 못한 일은 당연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닫힌 개념에서 벗어나(dis-cover)’ 새로운 발견(discover)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그 일환으로 치료적 민감성의 기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영역에만 묶이지 않고 현상을 해체(d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거쳤다. 해체는 하이데거나 들뢰즈(Deleuze)의 주장처럼, 기존의 것을 ‘폐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강영안, 2012)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 즉 자료는 물론 다양한 책, 매체를 통해 다각도의 관점과 해석으로 민감성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려고 했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하이데거의 지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즉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논리적 언어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이데거의 믿음처럼, 시나 예술을 통한 해석을 강조했던 하이데거의 생각처럼, 연구자들은 의미적 연관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영역을 찾아가 하는데 기존의 학술적 관점에만 묶이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빌려 아동상담에서의 치료적 ‘민감성’이라는 현상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다각도로 보고 알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의 질이 연구자의 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본 연구 역시 한계가 많다. 우선, ‘드러나지 않은 것’에 주목한 ‘연구자의 의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질이라는 속성이 다 답을 수 없는 무변광대한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한계 속에서 연구자의 고투는 어떠했는가 자문해 볼 일이다. 같은 맥락으로 둘째, 치료놀이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변화에 따른 치

료적 민감성의 세세한 부분을 다양한 측면에서 또한 장기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큰 안목과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민감성’의 엄밀함을 깊게 파헤치고 멀리 조망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필요한, 그 절실한 노력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해에 따른 숙고를, 숙고에 따른 실천”(신현정, 2012)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과 및 해석

1. 치료놀이 상황에서의 치료적 ‘민감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 즉 치료놀이 상황에서 발견되는 치료사의 ‘민감성’을 분석했다. 치료를 위해 치료사는 아동의 욕구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치료사에게 지각된 욕구는 곧 치료사의 행위로 드러나고, 치료사의 행위가 다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아동의 행위를 이끌고 그 행위에 따라 다시 치료사는 반응한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 교환(inter-action)’(신현정, 2009)을 통해 아동은 기존의 자기-타자 관계를 재구성한다. 재구성 하는 과정 속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치료적 ‘민감성’이다. 치료사, 영아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서 발견된 치료적 민감성이 어떠한 ‘행위의 교환(inter-action)’을 통해 드러나는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층적 일관’에 대응하는 ‘원리적 일관’

일관(一貫)이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지칭한다(이희승, 2011). 연구자들이 발견한 치료적 민감성은 바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신현정, 2009) 아동의 일관을, 치료사의 치료적 일관을 통해 좀 더 변화된 일관으로 돕는 일이었다.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레비나스(Levinas, 2003)는 "순간 안에서 존재(existence)는 탄생하는 동시에 죽듯이 존재는 순간이라는 절¹²⁾(stance)을 가로지르고 관통하여 지속을 실현하는 어떤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레비나스는 "우리는 순간을 그 순간과 또 다른 순간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고찰"(Levinas, 2003)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레비나스의 말을 빌리면, 아동의 일관과 치료사의 일관은 순간순간 현존재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현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아동이라는 존재(자)의 다층적 일관은 시간과 관계에 따라 몸을 통해 달리 드러나는 일관의 한 모습인 셈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답습적’ 일관·‘상황적’ 일관

<1>

엄마, 치료사와 함께 놀이실에 들어온 가희는 넓고 폭신한 쿠션을 등 뒤로 하고 앉는다. 치료사가 "가희 안녕?"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인사하자 아이는 몸을 돌려 엄마를 올라타듯 엄마 무릎을 밟고 목을 꼭 껴안는다. 치료사가 "그래~"하며 옆에 둔 바구니에서 로션병을 꺼낸다. 엄마는 치료사를 향해 아이를 안고, 치료사가 로

션을 잘 바를 수 있도록 아이의 옷소매를 살짝 끌어올린다. 아이는 그 상황이 석연치 않은 듯 두 팔을 잠시 파베기처럼 맞잡는다. 치료사는 "푸른 바다 건너서..."노래를 차분히 부르며 아이의 왼손 손톱과 손등에 꽃모양으로 로션을 부드럽게 발라준다. 무슨 일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기의 손을 바라보던 가희는 노래가 끝날 무렵, 치료사가 "이거 가희 꽃이지?" 하자 나머지 오른 손으로 왼손 손등을 문질러 그 꽃을 없애 버린다. 치료사는 아이가 묻지르는 그 손을 함께 잡고 로션을 발라 그 꽃들을 아이의 손에 다 스며들게 해 준다. 이어 치료사는 아이의 오른 손에 로션을 바른다. 노래가 중간쯤 되자 가희는 꽃모양이 그려지다 만 손등을 왼손으로 문질러 버린다. 치료사는 아이가 묻지르는 로션을 함께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푸른 바다..."노래를 마친다(2011/12/18).

어른의 도움이나 보살핌을 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도움이나 돌봄을 받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어른보다 '약자'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다. 자신이 이끄는 대로 상황이 굴러가는 것을 원하는 가희에게 치료사라는 성인이 로션을 발라주고 꽃을 그리고 다정하게 대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하는 마음이었지만 곧 로션이 발리는 상황을 알아차린 가희는 어른의 보살피주고자 하는 마음을,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가희는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이 상황을 이끌어간다. 로션을 발라주는 치료사의 행위를 자신이 한결같이 해 오던

12) 하나의 절로 끊어진 단위

‘일관’으로 밀고나감으로 치료사를 당황시키려 한다. 그 당황을 틈타 가회는 기존 자신의 ‘일관’적 모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치료사는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치료사는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수용하며 심지어 돕기까지 한다. 모순되게도 아이의 ‘돌봄’ 차단 행위가 다시 ‘돌봄’의 행위로 확장된다. 치료사의 보살피려는 ‘일관’은 아이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일관’과 중첩된다. 뽀족한 아이의 ‘일관’은 그것을 담아주는 치료사의 ‘일관’ 속에 묻힌다. 치료사의 ‘일관’은 아이의 의도를 미리 읽고 그 의도를 좋은 것으로 다시 돌려주는 치료적 ‘민감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던 대로 하는 아동의 ‘일관’적 모습은 동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동수는 사과가 꽂힌 포크를 쥐고 놀이실을 걸어 다닌다. 기저귀를 찬 아이의 발걸음이 뒤통댄다. 잠깐 서서 사과를 한입 베어 물고는 놀이실 안을 한 바퀴 돌아 엄마, 아빠, 그리고 치료사가 있는 곳으로 온다. 포크를 쥐지 않은 오른 손에도 사과조각을 가지고 있다. 치료사는 사과가 담긴 그릇 뚜껑을 닫아놓고 있다. 치료사 앞에 선 동수가 뚜껑 덮인 사과 그릇을 보자 “으응”하며 짜증을 낸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사과를 밑으로 툭 던져버린다. 치료사가 아동의 손에 있는 포크를 “이거 선생님 줘요”한다. 동수는 안 주려고 포크를 꼭 쥐다. 치료사는 다시 “선생님 줘”라며 웃지 않고 일상적인 어투로 명료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아이의 왼손을 펴서 아이가 쥐고 있던 포크를 가져간다. 치료사는 그릇 속 사과를 가져 온 포크로 찌어 아이의 입에 넣어준다. 서 있던 아이는 엉겁결에 받아먹는다. 그러면서 치료사가 가져간 포크를 잡으려 손이 올라가다 멈췄한다(2012/01/29).

걸음을 걷기 시작한 18개월의 영아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호기심이 탐색으로 연결되기에 18개월 아이의 걸음은 아직 불완전하다. 동수도 그랬다. ‘뭐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는 뽀족한 포크를 쥐고 어설픈 발걸음을 떼어도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잘 몰랐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관념이 아이에게겐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었다. 치료사는 아이의 행보를 차단한다.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도, 호들갑스럽게 쫓아가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주시한다. 특히나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동수는 가만히 앉아서 사과를 먹지 못한다. 동수가 오자 치료사는 동수에게 사과를 먹지 못할 것에 대해 ‘닫힌 뚜껑’을 통해 암시한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으나 어린 동수는 알아차린다. 그리고는 여태껏 집에서 하던 ‘일관’적 모습으로 치료사를 대한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아이는 쥐고 있던 사과를 버린다. 그러나 치료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포크를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손아귀를 펴서 동수에게서 포크를 좀 강하게 가져간다. 치료사는 ‘일관’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한다. 싫어해도, 고집을 부려도 ‘안

되는' 치료사의 '일관' 속에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치료사의 집중한 고집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전이(transition)적¹³⁾’ 일관 - ‘상황적’ 일관

전이(transition)적 일관이란, 멈춰 있는듯하지만 이행과정에 있는 일관을 뜻한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순간순간 태어나고 죽는 우리 존재는 결국 전이적 존재다. 같지만 다른 존재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내면은 달라져 가고 있었다. 아니, 멈춰있지만 이행하는 전이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달라짐 속에는 치료사의 ‘상황적’ 일관, 즉 ‘지금-여기’에서 아이에 맞게 행위 하는 치료사의 일관적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

<3>

손바닥만 한 곰돌이 인형을 머리에 얹

13) 겉모습은 기존의 행동을 답습적으로 반복하듯 보일지라도 마치 물이 0도에서 어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의 행동도 달라져 간다. 그 정체기에 아동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그렇기에 여기서의 전이는 transference가 아니라 transition을 뜻한다. 즉 터너(Turner, 1982)의 말을 빌려 밝히면, 아이는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나 질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지위나 권리 의미 등을 자신에게 부여한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수평적 관계를 추구(조용환, 서근원, 2004)한다. 예상과 다른 불일치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직감하게 만든다. 그로인해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많은 부담으로부터 아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체험, 다시 관계를 정립해가는 수평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은 치료사는 아이가 선택한 그만한 크기의 말랑한 강아지 인형을 가희 머리에 놓아준다. 아이와 치료사는 30cm쯤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치료사의 ‘하나, 둘 셋!’에 맞춰 아이와 치료사는 머리를 숙임으로 인형을 떨어뜨린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자 가희는 껌싸게 곰돌이 인형을 줍는다. 그리고는 “곰돌이 할 거야”한다. 치료사는 “그러자. 좋은 생각이네”하며 아이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이는 이미 주은 곰돌이 인형을 빼앗길새라 몸 뒤로 빼내고는 강아지 인형을 치료사에게 팔을 뻗어 건네준다. 치료사는 “바꾸자”하며 아이의 행동을 읽어준다. 그리고는 아이를 도와 아이의 머리에 곰돌이 인형을 얹어준다. 다시 치료사의 신호가 떨어지고 가희는 치료사보다 조금 늦게 인형을 떨어뜨린다. 떨어진 인형이 땅에 닿기도 전에 아이는 낚아채듯 인형을 집어 인형에 눈을 집중한 채 만지작거리며 “곰돌이 할래”한다. 그러자 치료사는 앉은 자세에서 낮게 몸을 구부려 아동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한다. “너는 곰돌이 할래~~ 그래, 나는 이번에는 강아지”한다. 그리고는 다시 머리에 아이가 인형 없는 것을 도와준다. 다시 ‘하나, 둘, 셋!’과 더불어 인형이 떨어진다. 치료사가 옆에 있는 바구니에서 원숭이 인형을 꺼낸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원숭이도 있어” 아이는 그 말이 떨어지자 원숭이를 잡는다. 그리고 “나는 원숭이”한다. 치료사가 가희를 보며 분명하게 “너는 원숭이할거야... 가희는...” 하고 말하자 아이는 대답이 없다. 그러자 치료사는 “나는 그럼 곰돌이 할 거야”한다.

그리고는 아이 머리에 원숭이인형 올리는 것을 도와준다. 아이는 치료사가 자신을 돕지 못하도록 머리에 두 손을 뻗어 버둥 거렸다. 치료사는 가희 머리에 놓으려 했던 원숭이도 곰돌이 위에 놓고 강아지마저 치료사의 머리 위에 얹는다.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치료사와 치료사 머리 위 인형을 보며 치료사를 향해 팔을 뻗는다. 치료사가 인형들을 머리에 얹는 중에 가희는 “곰돌이 할 거야”를 연신 반복한다. 치료사는 세 인형을 모두 머리에 얹고 아이를 향해 말한다. “너 곰돌이 할 거야? 기다려”하자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하나, 둘, 셋!’하며 치료사는 인형 세 개를 모두 떨어뜨린다. 아이는 조금 전과는 달리 인형을 덩석 집지 않는다. 치료사가 곰돌이 인형을 집어 아이에게 주며 “그래 이제 너 곰돌이”한다. 그리고는 아이가 머리에 곰인형을 얹도록 돕는다. 둘은 머리에 인형을 하나씩 얹고 ‘하나 둘 셋!’ 한 후 고개를 숙여 인형을 떨어뜨린다. 치료사가 묻는다. “이제 넌 뭐 할 거야?” 아이가 대답한다. “곰돌이” 그리고 나서 아이는 곰인형을 가져간다(2012/01/22).

가희는 치료사가 자신의 머리에 인형을 얹도록 도와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록 스스로 머리에 인형을 놓지 못할지라도 어른의 ‘간섭’이 가희는 싫다. 뒤집힌 인형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신경질이 날 태세지만 아이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한다. 게다가 치료사가 갖는 것도 다 자기차지로 만 들고 싶어 한다. 인형을 골랐음에도 곧바로

치료사가 선택한 인형을 달라고 하는 행위에 서 숨은 가희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규칙이나 질서는 없다. 곧 가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희에게는 질서요, 규칙이었다. 그러니 참거나 기다리거나 소통하는 것은 가희에게 규칙과 질서가 아닌, 혼란과 통제였다. 치료사는 가희에게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질서도 있음을 알려주려 한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 행위를 소통으로 전환하려 노력한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수용하면서 치료사도 아이의 의견을 따라준다. 이것은 아이에게 ‘압도되어서’, 혹은 아이가 폐를 쓰는 것이 ‘두려워서’ 따르는 기존의 상호작용 방식과는 다른 행위다. 치료사는 일관적으로 아동과 소통하기 위해 행위 한다. 인형을 머리에 얹으려는 아이의 서투른 몸짓을 돕고 상황에 맞춰 아이와 소통하려 한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 않은 채 곰돌이를 낚아채듯 잡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아이에게 대화를 통해 ‘가희와 치료사는 각각 무엇을 하려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 스스로 알도록 치료사는 정리해 준다. 또한 ‘원숭이 했다가 곧 바로 곰돌이 하는’, 즉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아이에게 기다리는 기회를 줌으로 질서가 있음을 알려준다. 치료사는 아이에게 ‘질서’와 ‘소통’에 대한 일관적 메시지를 주느라 ‘각기 그때’ 아이에게 맞는 상호작용을 일관되게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는 당황한다.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은 자신이 예상했던 어른의 반응과는 상당히 달라 기존의 ‘답습적’ 일관이 흔들린다. 그럼에도 아이는 계속적으로 기존 성인들과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치료사를 탐색

한다. 그러기에 머리에 인형 얹기 돕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인형 선택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나 치료사는 달랐다. 자신의 말을 수용해 주면서도 다른 어른들처럼 자신에게 끌려오지 않았으며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소통을 통해 정리해 주었다. 심지어 자신을 기다리게까지 했다. 아이는 치료사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못내 이상했다. 아이는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겉으로는 기존의 하던 모습을 답습하듯 보였지만 내면의 혼란을 겪으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구성적’ 일관-‘상황적’ 일관

‘답습적’, ‘전이적’ 일관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던 아이들은 치료사의 ‘상황적’ 일관에서 드러나는 ‘각기-그때’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자기와 타자를 ‘구성’해 간다. 하지만 그 ‘구성’ 속에도 ‘답습적’이고 ‘전이적’인 행위를 고수하려는 아동의 일관적 모습은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견지되는 태도와 행동 속에서도 아동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다음 모습을 보자.

<4>

오른손잡이인 가희가 상자에서 지름 3cm 정도의 꽃모양 블록을 집게로 집어 다른 상자에 옮기려 하고 있다. 치료사는 가희가 블록을 편하게 옮기도록 상자의 위치를 바꿔준다. 그리고 가희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바라본다. 아이는 블록을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집게로 집어 다른 상자로 옮긴다. 치료사는 “가희 줌 옮기고 있네”하고 말한다. 차분히 하던 가희는 블록

하나가 안 집히자 몇 번이나 집게로 집었다 놓친다. 그러자 다른 한손으로 블록을 잡으려는 듯 왼손이 살짝 움직인다. 하지만 가희는 왼손으로 상자도, 블록도 잡지 않는다. 잠시 움찔했던 그 손을 가희는 다시 내려놓는다. 치료사의 “그렇지”하는 격려와 더불어 가희는 블록 옮기는 활동을 끝까지 해낸다(2012/02/12).

어른을, 요구관철을 위한 ‘도구적 연관’으로 생각해왔던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옮기는 놀이’를 통해 어른의 지지와 격려를 수용한다. ‘도구적 연관’이 ‘의미적 연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라도 오히려 어른의 격려와 지지, 칭찬이 자신이 스스로 할 힘을 불러주는 큰 의미임을 알아차리게 된 가희는 그 상황을 잘 견뎌낸다. 잘하고 싶어서, 빨리 하고 싶어서 손으로 블록을 잡고 싶은 것도 참는다. 결국 가희는 ‘찰나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로 ‘깊은 성취’를 맞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치료사의 ‘민감성’을 이루는 한 요소 중 ‘일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치료사의 일관에 대응하는 아동의 모습도 역시 일관적이었다. 하지만 일관은 하나의 의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변하지 않는 치료사의 ‘일관’이라는 원리(‘원리적’ 일관) 속에는 ‘각기-그때’마다 달라지는 상황이 존재했다.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치료사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다.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아이마다, 각기 그때 상황마다 달랐다. 그렇기에 치료사가 대처하는 ‘상황적’ 일관은 각기 아동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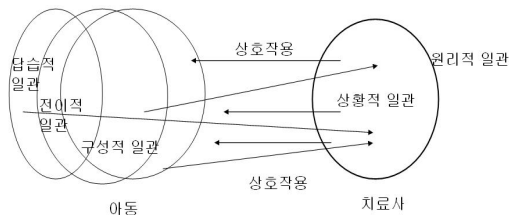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에 따른 아동-치료사 간 ‘일관’ 및 상호 작용 양상

사의 의무요, 책임에 다름 아니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하던 모습을 고수하던 ‘답습적’ 모습에서, ‘전이적’ 일관의 모습으로 치료사를 대했다.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행위와 생각을 끊임없이 구성해 나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일관적으로 보였던 그 역동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적이었던 이유 역시 레비나스의 말처럼, 순간순간 나고 죽는 존재 모습의 관계적 반영이기 때문이었으며 아이의 ‘답습적’, ‘전이적’, ‘구성적’ 일관의 모습이 포개져 있는 까닭도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아이의 이러한 변화는 치료사의 민감성의 한 요소인 ‘일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치료사는 아동의 변화를 위해 한결같은 ‘원리적’ 일관 하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적’ 일관을 몸으로 표현하며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관심의 발아를 촉진하는 ‘몰입’

관심(interest)이란 ‘존재(est) 사이(inter)’(조용환, 2012a)를 뜻한다. 즉 있는지조차 몰랐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바로 관심이다. 치료사는 아동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한다. 관심을 촉진시키려고

치료사는 온 지각을 통해 민감성을 발현시킨다. 그 ‘민감성’의 한 모습이 바로 ‘몰입’이다. ‘몰입’은 때론 모순되게도 ‘무관심’으로 가장한다.

<5>

놀이실이 온통 정육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놀이실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는 치료사와 문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끄럽게 “엄마”를 찾는 정육이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정육이는 심하게 울면서 엄마를 찾는다. 치료사는 정육이와 놀기 위해 준비해 온 약간 질척한 밀가루 점토를 꺼내 동그랗게 말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우는 정육이를 달래거나 치료사 근처로 데려오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냥 앉아서 조금 큰 목소리로 ‘퐁당퐁당’ 노래를 부른다. 치료사의 노래에 리듬을 타면서 동그랗게 말린 밀가루가 거울 위에 ‘착’ 하고 붙는다. 치료사의 노래와 밀가루 던지는 행위가 계속된다. 거울 곳곳에 붙은 밀가루를 아이는 울면서 힐끗 쳐다본다(2012/09/13).

치료사는 거칠게 울며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놀이실 한 가운데서 질척한 밀가루 점토를 말아 거울 위에 던져 ‘척척’ 소리를 내며 붙이고 있다. 게다가 혼자 노래까지 한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약까지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하게까지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 치료사의 치료적 ‘민감성’에서 기인한다. 어머니와의 면담과 상호작용 평가를 통해 정육이의 패턴을 안 치료사는 정육이의 울음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아이의 행위에 보인 ‘무관심’한 치료사의 행동이 결국 아이의 ‘관심’을 촉발한다. 기존 어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정욱이는 치료사의 대응이 생경하다. 치료사는 우는 자신에게 찢찢매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행동도 한다. 밀가루를 말아 거울에 붙이고 심지어는 노래도 한다. 프로이트(Freud)의 말을 빌려, 아이는 자신에게 가득했던 ‘일차적 자기애’를 ‘이차적 타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가득 차 있던 집착의 에너지를 타자에게로 변환시킨다. 그 계기가 치료사의 ‘무관심’을 가장한 몰입을 통해 발생된다. ‘무관심’으로 표현된 치료사의 ‘몰입’ 속에는 부모를 통해 알게 된 아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분석, 치료사와의 상호작용 사이에 나타난 순간-순간적 역동의 파악, 그리고 아이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 등이 치료사의 행위 안에 묻어난다.

‘몰입’은 한편, ‘배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배려’에는 ‘공감’이 전제된다.

<6>

부모가 천으로 된 터널을 양쪽에서 잡고 동수가 그 속을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신비한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터널을, 아이는 보이는 엄마를 향해 뒤뚱거리며 나온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반대쪽에 있는 아빠를 향해 발걸음을 땀다. 걸어 다니는 동수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터널을 걸어 나온 동수를, 엄마 아빠가 웃는 얼굴로 환하게 맞아준다. 그러던 동수가 다시 터널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기어가기 시작한다. 치료사가 기는 아이의 무릎이 아프

지 않도록 이불을 터널 바닥에 깔아준다 (2012/02/19).

치료사는 엄마와 아빠를 치료 상황에 참여시킨다. 부모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부모가 직접 상호작용에 참여해 배울 수 있게 치료사는 돕는다. 위 사례에서 동수는 부모가 있는 곳까지 힘껏 발걸음을 땀다. 그런데 아이는 걷는 대신 기어서도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한다. 치료사는 아이의 기는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이불을 깔아준다. 동수가 마음껏 기고 또 걸어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치료사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이에게 ‘몰입’된 행위, 즉 ‘공감’이 전제된 ‘배려’를 바탕으로. 아이는 타자의 마음을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타자의 마음을 ‘체득’한다. 체득된 타자의 마음은 소중한 자신으로, 또 귀중한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아이도 ‘온통 향한 마음’, 즉 ‘몰입’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대하는 방식을 자연스레 알아나가게 된다. 이렇듯 관심의 발아는 치료사의 ‘몰입’된 행위를 통해 촉진된다.

‘몰입’은 또한 ‘전환’을 일으킨다. 다음 상황을 보자.

<7>

치료사가 동수와 거울을 보고 나란히 앉아 거울에 묻힌 로션을 바르고 있다. 치료사의 몸은 아이에 맞게 많은 낮추어져 있다. 아이의 손과 치료사의 손이 함께 포개져 거울에 로션을 바르면서 둘은 함께

즐겁다. 그런데 두 사람의 로션 묻은 손이 거울에 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투명했던 거울은 불투명해진다. 아이의 웃는 얼굴도, 치료사의 미소도 불투명한 거울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때 동수가 몸을 일으켜 거울 투명한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다. 치료사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에게 ‘까꿍’한다. 치료사 역시 로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거울 속 웃는 얼굴을 투명한 쪽으로 내민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치료사의 ‘까꿍’에 즐거운 웃음을 짓는다. 둘 사이에 서로를 향한 ‘까꿍’놀이가 이어진다(2012/02/26).

치료사는 아이의 행위와 의도를, 온 지각을 동원해 읽는다. 오감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의 방향은 치료사로 하여금 다른 행위로 확장시킬 기회도 제공한다. 위의 사례에서 치료사는 아이와 함께 로션 바르기 놀이를 통해 ‘상호조절’과 ‘접촉’을 체험하고 있다. 그 놀이가 진행되는 중 아이와 치료사는 불투명해진 거울로 인해 서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게 된다. 아이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일어나서 비춰본다. 그러자 치료사가 그 아이에게 ‘까꿍’한다. 아이는 그러한 치료사의 반응이 즐거운 듯 미소를 짓는다. 치료사는 ‘개입’을 통해 ‘함께 있는 즐거움’을 아이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치료사는 목표에 맞게 놀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놀이를 한다. 그러나 때때로 가변적인 치료놀이 상황은 그때그때에 따른 치료사의 ‘실존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실존적 결단’은 대개 ‘몰입’을 통해 결정된다. 아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가 놀이를 지속

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가 견딜만한 도전의 정도에서 자신이 어느 수준의 ‘보조자야’가 되면 좋은지 치료사는 고민을 통해 순간순간 결정한다. 위 사례에서 로션이 묻지 않은, 거울의 투명 부분에 자신을 비춰본 아이의 우연한 행동을 실마리로, 놀이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아이의 행동에 대한 ‘몰입’을 통해 치료사는 한 행동을 다른 행위로 연결한다. 그 연결된, 예상치 않은 행동에 아이는 웃는다. 그리고 그 웃음은 치료사와의 ‘까꿍’놀이를 이어진다. ‘까꿍’을 통해 둘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몰입’을 통한 행위의 ‘전환’은 결국 놀이로, 사람으로, ‘존재 간(inter-est)’의 새로운 ‘관심(interest)’으로 확장된다.

용인(容忍)능력 확장에 대한 ‘믿음’

영아에게 ‘참는 것’은 ‘도전’이다. 아이에게 뿐 아니라 ‘참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스피츠(Spitz)에 의하면, 15개월 때 ‘싫어(No)’를 하게 된(Mitchell & Black, 2002) 아이들은 점점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 뜻대로 하려는 아이의 요구를, 부모는 웬만하면 들어준다. 웬만한 게 아니라도 고집만 부리면 무조건 들어준다는데 문제는 있다. 아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희에게, 동수에게, 그리고 정욱에게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치료놀이 상황에서 치료사는 아동의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견딜만한 수준에서 아동을 좌절시킬 때도 있다. 그 좌절은 특히, ‘기다림’을 통해서 부각된다.

사례<3>을 보면 가희는 치료사의 인형도, 자기 인형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그 속에서 ‘질서’와 ‘소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사는 아이에게 ‘기다림’을 통한 질서를 부여한다. 아이는 결국 ‘기다림’이라는 좌절을 수용함으로 더욱 성장한다. 다른 세션에서도 가희는 자기가 조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힘들어 했지만 가희는 점차 ‘기다리고 참는 것’을 몸으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랬기에 <4>에서처럼, 타인의 ‘강요’도, 스스로의 ‘동요’도 없이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정욱이도 마찬가지였다. 매 세션마다 정욱이는 심하게 울었다. 부모와 헤어져 놀이실에 들어올 때 더 격렬하게 울었으며 치료사와 멀찍하게 놀이를 하다가도 추임새처럼 엄마를 찾으며 울기¹⁴⁾도 했다.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상황이었기에 정욱이에게 울음은 모든 것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었다. 고민하던 어른들이 ‘들어줄까 말까’를 갈등하던 그 순간은 울음을 강화시키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정욱이는 적절한 소통을 체득하지 못한 채 자신을 표현하는 법으로 울음을 배웠다. 그러나 치료사는 ‘무관심’을 가장한 ‘몰입’을 통해 아이를 기존의 성인과 다르게 대했고 그것은 정욱이로 하여금 ‘중심이었던 자신’을 ‘소외당하는 자신’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소외’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이 과거 ‘객체에 의해 소외되었던 주체’를,

14) 어머니를 놀이상황에 참여시킬 것인지, 일방경 뒤에서 관찰할 것인지는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사와 어머니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치료적 민감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점차 ‘주체 중심의 선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아이는 자신의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자에 의해 불안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는 울음이 아닌, 말로 하는 ‘소통’을 통해 자신을 더 이상 ‘아기가 아닌 아동’으로 성장시킨다. 이제 아이는 피아제(Piaget)식의 ‘동화’와 ‘조절’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세상을 자신에 맞추며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그토록 ‘동화’시키려고만 했던 자신의 세상을, 치료사의 지독한 ‘믿음’을 통해, ‘조절’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때론 ‘무관심’으로, 때론 ‘기다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참는 것, 즉 용인 능력은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아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곧 ‘만족지연’을 통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젓먹이 영아 때부터 용인능력이 있음을 아는(신현정, 2006) 치료사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아동의 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에 의한 치료사의 행위는 결국 아동이 기존의 자신을 넘는 ‘초월’과 맞닿는다.

2. 치료놀이 상황에서의 치료적 ‘민감성’ 기제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이 곧 아동-치료사 간 행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인 것”(신현정, 2009)처럼 치료놀이 상호작용에서는 ‘소통’을 중요시한다. 치료적 ‘민감성’은 아동-치료사 간 소통을 위해 치료사가 아이의 마음과 행위를 간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스

피츠의 말처럼 특히, 영아들은 “눈 뜬 맹인과 같이 스스로 경험들을 처리하고 조절할 자아의 능력을 발달시킬 때까지 그 경험을 대신 처리하고 조절해주며 부드럽게 달래주는 물론 과잉자극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해 줄 ‘보조자아’가 필요”(Mitchell & Black, 2002)했다. 영아의 ‘보조자아’는 엄마로 대표되는 부모나 중요한 타자가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나 중요한 타자가 ‘보조자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혹은 ‘보조자아’가 무언지 몰라서 아동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극에 노출된 채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3명의 영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치료사는 ‘보조자아’가 되어야 했고 그 힘을 부모가 갖도록 그 상황을 이해시켜야 했다. 치료사가 아동의 보조자아가 되는 길은 아동의 행위 이면의 의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자극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스스로 경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사는 ‘민감성’ 발현을 위한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켜야 했다. 치료사 행위의 근원이 되는 심리적 기제에는 다음과 같은 두 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원리’와 ‘내용’의 이중주

카멜레온은 상황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꾼다. 특히,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보호색으로 바꾼다. 이는 주변의 색과 유사하게 보임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카멜레온의 본능적인, 혹은 계산된 움직임이다. 카멜레온은 승리하거나 행복할 때, 감정표현,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색을 바꾼다(www.naver.com).

카멜레온은 감정의 표현, 소통의 매개, 보호의 도구로 ‘바꿈’을 활용한다. 카멜레온에게

‘바꿈’은 원리이자 내용이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 카멜레온은, ‘비일관’을 ‘일관’으로 삼는다. 여기에 원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불협화음 같은 조화가 발견된다. 치료사의 ‘민감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감성의 한 요소인 ‘일관’을 예로 들어 보면, 치료사는 ‘보호’, ‘돌봄’, ‘소통’을 위해 ‘원리적’ 일관을 민감성의 기제로 삼았다. 그리고 ‘각기-그때마다’ 다른 ‘상황적’ 일관을 각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내었다. ‘그때그때’ 달라 보이는 내용적 측면인 ‘상황적’ 일관의 모습은 카멜레온에게서 나타나는 ‘비일관’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일관’은 ‘일관적’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적 일관의 표현방식이다. ‘원리적’ 일관을 지향하는 치료사의 민감성을 ‘각기-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담아내는 현존재(Dasein)의 실존적 모습이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샤르트르(Sartre)의 주장처럼 치료사는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 “아동이 스스로의 체험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자아의 능력을 발달시킬 때까지” ‘돌봄’, ‘소통’, ‘보호’라는 본질적 원리를 위해 실존한다. 실존하면서 치료사는 상황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 까닭에 ‘일관’과 ‘몰입’과 ‘믿음’을 민감성의 원리적 가치로 삼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침범에 가까운 ‘관심’으로 카멜레온처럼 행위 한다. ‘원리’와 ‘내용’은 어느 한 축이 기울어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없다. 낱실과 씨실의 만남이 옷감을 완성하는 것처럼 ‘원리’와 ‘내용’의 ‘조화’로운 이중주가 치료사의 민감성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다양성’에 대한 개방

앞서 연구자들은 ‘민감성’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쩌면 ‘민감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현재조차도 질적인 영역의 극히 한 부분만을 보고 민감성을 이해한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훗설의 말처럼 “구성이 곧 의식과 대상의 상관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려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그토록 밝히고자 했던 본 연구에서의 ‘민감성’은 민감성이라는 무변광대한 ‘잘’속에 대단히 일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치료사요 연구자인 우리는 아이들과의 치료놀이 상호작용 ‘장’의 복잡다단함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존재는 부단히 보려 노력하는 만큼 자신을 열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적 ‘민감성’을 발현시키는 기제는 치료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양성’에 대한 개방이다. ‘다양성’에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치료사는 상황을 다양하게 보고 관점을 달리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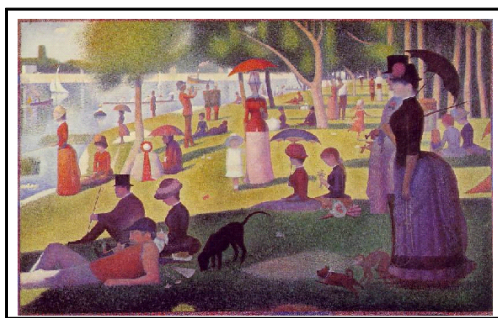


그림 2.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림이 있다. 쇠라(Seurat)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그것이다. 이 ‘그림’을 기초로 사유를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첫째, 치료적 민감성이 어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아니라 각기 다른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다. 위 그림은 각각의 점들로 표현된 다양한 색들이 서로 어울려 형상을 나타낸다. 고정된 점으로서 별 의미도, 하찮게 보일 수 있었던 세세한 점들은 한데 모이고 섞여 다양한 색채를 구성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된다. 치료사의 ‘민감성’ 역시 ‘일관’, ‘몰입’, ‘믿음’이라는 구성 속에 ‘보호’, ‘소통’, ‘돌봄’, ‘질서’, ‘공감’ 등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별 의미 없어 보였던 하나의 치료사 행위도 아동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완성된 그림을 위해 모일 때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행위 역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쇠라가 사용한 노란색 점이 상황에 따라 잔디를, 또 나뭇잎을 구성했던 것처럼 치료사의 ‘몰입’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즉 상황과 무관한 고정된 의미의 치료적 민감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던 그 행위가 실은 치료사의 의도된 몸짓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감성 속에 포함된 메시지도 서로 섞여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소통’과 ‘질서’가 어울려 치료사의 민감성을 구성하기도, ‘돌봄’과 ‘질서’가 모여 치료적 ‘민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의 고정된 의미의 민감성이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감성의 각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각기 그때의 맥락에 따라 합쳐지거나 배제되거나 한다.

둘째, 치료적 ‘민감성’ 요소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 영역(개념)이 중첩됨은 물론 그것이 주체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개방성에 대한 수용이다. 민감성에 대해 알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치료사가 보인 ‘몰입’ 속 ‘무관심’과 ‘관심’의 경계가 무엇인지, 아이의 ‘용인 능력’을 위해 지연을 ‘격려’하는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일은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 ‘무관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몰입’을 통해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하는 치료사의 판단은 어렵기만 하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이 ‘다양성’에 대해 치료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노력의 근원이 된다. 더불어 치료적 ‘민감성’을 구성하는 ‘일관’, ‘몰입’, ‘믿음’이라는 요소는 그 속의 메시지, 즉 ‘보호’, ‘소통’, ‘돌봄’, ‘질서’, ‘공감’ 간 관계가 모호하다.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인지, 어떤 것이 하위 개념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유는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달리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에서 보듯 가희에게 ‘소통’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일관적’ 모습을 보였던 치료사의 상황은 다른 아이에게는 ‘일관’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소통’을 강조할 수 있다. 개념과 위치가 각기 그때의 상황에 따라, 아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민감성 구성 요소를 치료사의 태도 및 행위요, 그 속에 흐르는 메시지는 태

도 및 행위를 지원하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에서의 영아들은 이러한 구분이 적합해 보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관’이라는 메시지 전달 및 수용을 위해서 ‘소통’이 강조될 수도 있는 일이다. 민감성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도 있다. 따라서 치료사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존재 간 교류(interpret)’(신현정, 윤미원, 2011)에 대한 치료적 ‘민감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해석(interpret)’을 해야 한다. 가령, 동수의 ‘보호’를 위해 사과를 쪼은 포크를 가져갔던 치료사의 ‘일관’이 다른 사람의 눈에 오히려 ‘엄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기회를 기다리게 하는 치료사의 ‘용인능력’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무성의’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치료사는, 이 모든 개방성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하지만 치료사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마치 위 그림에서 ‘틀’까지도 그림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쇠라의 소신처럼 치료사는 원리와 내용에 대한 치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태의 다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차연’을 강조한 데리다(Derrida)의 말을 빌려,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반복되는 세세한 상황의 다름 속에서 치료사는 ‘전경’과 ‘배경’에 주목하고 ‘차이’와 ‘변주’를 가늠하며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사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은 아이를 위해 기법적 발달을 촉진하려는 치료사의 노력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박완서

(2010)의 말처럼, “관념이 아니라 실감”이기 때문이다.

셋째, 상황에 따른 적합한 기법 적용을 위한 치료사의 ‘다양성’ 추구 노력에 대한 강조다. ‘점요주의’라는 기법적 특징을 갖고 상황을 보다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는 위 그림처럼 아이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위해서 치료사는 ‘그때그때’ 맞게 다양한 색 활용이 가능한, 노련한 기법의 소유자여야 한다. 작은 행위들이 모여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지, 치료사는 직관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작은 행위들이 보다 나은 상호작용으로 연결될 것인지, 하나하나의 점과 같은 행위들에 대한 기법적 숙련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유는 점과 같은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도 바로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해 아동상담에서의 치료적 ‘민감성’을, 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민감성’의 실체는 대단히 ‘질적’이라 쉽게 알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영아와 치료사 간 사례를 중심으로 치료적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민감성 개념이 주로 ‘도구적, 기능적’ 관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존재론적’ 입장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놀이에서의 치료적 ‘민감성’을 분석해 본 결과, 민감성은 ‘일관’, ‘몰입’, ‘믿음’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치료사는 아동의 ‘다층적 일관’에 대응해 ‘원리적 일관’으로

상호작용 하였다. 변함없는 원리를 토대로 ‘각기그때’마다 다른 상황에서 치료사는 일관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 하였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답습적’인 모습에서, ‘전이적’ 모습으로 또 ‘구성적’ 일관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 둘째, 치료적 ‘민감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는 ‘몰입’이었다. 몰입은 때로 ‘무관심’으로, ‘공감’을 전제로 한 ‘배려’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상호작용으로의 ‘전환’ 계기도 되었다. 셋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태’인 아동에 대한 존재론적 신뢰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토대로, 치료사들의 행위 이면 심리적 기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원리’와 ‘내용’의 조화 추구였다. 치료사들은 확고한 원리를 갖고 아동의 상황에 맞게 행위 했다. 그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은 아동을 중심으로 각기그때마다 달라졌다. 그러나 아이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치료사가 행위 하기란 굉장히 어려웠다. 따라서 치료사에게는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라는 또 다른 기제가 필요했다. 민감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 다양한 역동, 각기 다른 주체들 간 다양한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치료사는 좀 더 나은 치료적 민감성을 드러낼 기법적 숙련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다양성에 대한 개방을 위해 치료사 자신은 ‘자신 내’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을 겪는 치료사에게 자기반성은 필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한계 및 의의와 관련지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상담을 “직접 참여하고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실천 현상학(phenomenology

of practice)”(이근호, 2007)의 지향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민감성’을 나타내려 노력한 흔적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존재 사이를 연결(inter-pret)하는 해석(interpret)에 있어서 아동이라는 내부자와 독자 간 연결을 얼마나 풍성히 하였는지, 이해 가능하도록 도왔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감성이라는 질 속에 은폐된 수많은 민감성의 실체가 본 연구를 통해 얼마나 자세히 드러났는지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한계가 질적 연구의 속성 상 자기반성의 한 양태일 수도 있겠으나 ‘드러낸 것’ 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제한 인식은 앞으로 민감성에 대해 부단히 알려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과 맞물린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더욱 민감성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관점에 입각해 수행한 다른 연구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본 연구를 포함해 주로 성인의 영역에서 민감성(이형민 외, 2008; Hirsh-Pasek & Burchinal, 2006; NICHD, 2000; Paavola, Kemppinen, Kannari, & Kumpulainen, 2006; Saxon, Colombo, Robinson, & Frick, 2000)을 파악 하던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 주체로서의 아동 관점을 살린, 심층적으로 아동의 소리를 듣고 아동의 모습을 보는 연구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상호작용이란 ‘나와 너(I-Thou)’의 관계는 물론, 기꺼이 이를 초월하려는, ‘환대해야 하는 타자성’에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사유를 빌리면, 치료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와 아동에게 자신들이 주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염려(Sorge)’하게 하는

‘심려(Fürsorge)’의 궁극적 차원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어머니에게 자신의 실존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행위 하게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동 내부의 실존적 측면을 깊고 풍성히 보려는 어머니, 치료사 및 연구자의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눈’은 몸의 습관이 지향하는 어머니나 치료사의 자연스러운 몸을 통해 획득된다. 그렇기에 치료사나 어머니는 ‘민감성’을 염두에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냥’아동을 향해 열려 있는 몸이 되도록 부단히 몸의 도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더 나은 치료사(어머니)’를 지향해 몸을 바꾸려는 ‘공존재(Mit-sein)’의 ‘심려’의 몸짓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2012).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 한길사.
- 구미향 (2000).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 특성 분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경 (1997).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117-130.
- 김광웅, 김화란 (2006). 처음 만나는 놀이치료.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김연, 황혜정 (2008).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3), 23-49.
- 박완서 (2010).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서울:

- 현대문학.
- 박응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정 (2006). 모유수유체험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9(2), 89-115.
- 신현정 (2008). 아동상담에서 아동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4(3), 323-347.
- 신현정 (2009). 치료놀이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신현정 (2012). 전문대학생의 삶과 삶, 그 체험적 구성. *교육인류학연구*, 15(1), 187-227.
- 신현정, 윤미원 (2011). 치료놀이(Theraplay)에서 거울의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3), 103-135.
- 윤미원 (2005). 자폐아동의 사례분석을 통한 치료놀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희승 (201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2010).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6(2), 136-143.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12a).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조용환 (2012b). 질적 연구와 놀이. *치료놀이 창립기념회 자료집*.
- 조용환, 서근원 (2004).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7(1), 211-244.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 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X.,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tkinson, L., Goldberg, S., Raval, V., Pederson, D., Benoit, D., Morgan, G., Poulton, L., Myhal, N., Zwiers, M., Gleason, K., & Leung, E. (2005). On the relation maternal state of mind and sensitivity in the prediction of infant attachment sec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42-53.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ooth, P. B., & Jernberg, A. (2011). 치료놀이(3판). 윤미원, 김윤경, 신현정, 전은희, 김유진(역). 서울: 학지사. (원본발간일, 20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Fisher, B. A. (1978). *Perspective on human*

- communica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
- Franke, U., & Wettig, H. (2003).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raplay*. Presentation at Family Futures Consortium: Family Theraplay Introductory course, London, England.
- Hirsh-Pasek, K., & Burchinal, M. (2006). Mother and caregiver sensitivity over time: Predicting language and academic outcomes with variable and person centered approaches. *Merrill-Palmer Quarterly*, 52(3), 449-485.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Lamb, M. E., & Easterbrooks, M. A. (1981). Individual differences in parental sensitivity. In Lamb, M. E., & Sherrod, L. R.(Eds.), *Infant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IN: Accelerated Development.
- Levinas, E.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역). 서울: 민음사. (원본발간일, 1963).
- Mahan, M. G. (1999). *Theraplay as an intervention with previously institutionalized twin having attachment difficulties*(Doctorial dissert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at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Makela, J., & Vierikko, I. (2004). *From heart to heart: Interactive therapy for children in care*. Available at [http:// www. Theraplay. org](http://www.Theraplay.org).
- Meyer, L. A., & Wardrop, J. L. (2005). *Research on Theraplay*.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aplay, Chicago.
- Mitchell, S. A., & Black, M. J. (2002). 프로이드 이후 - 현대 정신분석학 -.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본발간일, 1995).
- NICHD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4), 960-980.
- Paavola, L., Kemppinen, K., Kannari, S., & Kumpulain, K. (2006). Characteristic of mother-infant communicative interaction: Relations to the ratings of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co-oper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4(3), 203-222.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g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34(5), 925-933.
- Saxon, T. F., Colombo, J., Robinson, E. L., & Frick, J. E. (2000). Dyadic interaction profiles in infancy and preschool intellig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9-25.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now, C. E. (1989).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Sentences are not enough. In B. Bornstein, & J. Bruner(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Turner, V. W.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인간이 지니는 놀이의 진지성. 이기우, 김익두 (역). 서울: 현대미학사. (원본발간일, 1982)

- Valenzuela, M. (1997). Maternal sensitivity in a developing society: The context of urban poverty and infant chronic undernutr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45-855.
- van den Boom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4(4), 592-594.
- Wettig, H. G., Coleman, A., & Geider, J. (201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raplay in treating shy, socially withdraw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0(1), 26-37.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www.naver.com. 카멜레온
- 1 차원고접수 : 2012. 10. 10.
- 수정원고접수 : 2012. 11. 19.
- 최종게재결정 : 2012. 12. 5.

An Analysis of Therapeutic 'Sensitivity' in Child Counseling: In the Context of Theraplay

Mi-Won Youn

Youn Theraplay counseling center

Hyun-Jung Shin

Dept. of Social welfare, Yeon 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ssue of therapeutic 'sensitivity' based on Theraplay, one child counseling methodology, by looking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hild, (especially younger children and infants), and the therapist. According to the results, conducted from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rapeutic 'sensitivity' is comprised of 'consistency', 'immersion', and 'trust'. First, 'consistency' is described as below. The therapist interacts with the child by means of 'principle consistency' as to the child's own 'multiple layer principle' through the unchangeable principle in a variety of different situations. The child then makes his(her) way from 'reassurance consistency', to 'transitional consistency', to 'constitutive consistency'. Another factor inherent to therapeutic 'sensitivity' is 'immersion'. Sometimes 'immersion' resembles 'indifference' as well as 'consideration' that involving also 'empathy', and sometimes this also leads to the 'transformational opportunity' of another interaction. Moreover therapeutic 'sensitivity' also contains 'trust' that comes from the ontological belief in a child who can be everything, otherwise known as 'potentiality'.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what therapeutic mechanisms may enable therapists to interact with children. One such mechanism is the harmony between 'principle' and 'content'. Another is an 'open-ended attitude to diversity'. Even though the therapist acts on these principles, he or she interacts with a child using a suitable action in very different situations. In order to replicate this, not only do therapists need training in skillful techniques and constant practice to adapt themselves to many diverse situations, but they also need the ability to self-reflect as therapists.

Key words : sensitivity, interaction, phenomenology, qualitative study, Theraplay, child counseling